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성장소설의 교육적 활용

오춘화*

1. 들어가기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는 논자들마다 차이를 지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문법, 어휘교육 측면에서 읽기능력 향상중심의 문학 교육, 두번째는 문화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문학교육, 그리고 세번째는 한국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있다. 실제교육 현장에서 문학 교육은 이러한 세가지 목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은 문학자체에 대한 향유를 가장 본질적인 목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학어로서의 한국어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문학을 향유하게 되는 것은 다른 영역이 할 수 없는 문학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복합적인 목표를 전제로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의 문학 감상 능력을 높이고 문학향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한중 작품비교를 통한 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교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성장소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학부과정의 한국문학작품 강의를 맡아 진행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시보다는 소설이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문학 교육제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삶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소설은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통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삶을 표현하고 삶을 삶 자체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냄으로써 조각조각 나뉘어진 일상의 의미를 총체적인 구조속에 되살리고자 노력”¹하기 때문에 시보다는 소설이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 제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성장소설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성장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정체성, 즉 교우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적 문제, 이성 문제, 직업적 탐색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성장소설은 청소년으로서의 작중 인물이 보여주는 정신적 성숙과 자아 정체성형성이 가장 핵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장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전반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주인공의 성장과정이나 성장체험을 통해 형성된 한국인의 정체성을 향상화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서울의 큰 학교에서 시골 학교로 전입된 ‘나’가 교실 집단 속의 권력관계와 집단으로의 편입과정을 보여 주면서 주인공이 저항과 굴복의 과정을 거쳐 자기발견을 이루는 성장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의 현대사에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¹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9.29-30쪽.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텍스트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성장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은 余华的 「가랑비속에서의 외침(在细雨中呐喊)」은 주인공의 성장과정에서 유사한 성장요인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3. 성장소설의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교육의 실제

문학교육에서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한국어 문학 교육에서 학습자는 세계 보편적 맥락에서, 혹은 특수한 맥락에서 한국 문화로서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며, 자국의 문학 작품 및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대비를 통해 세계 보편의 정서, 자국 및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3.1. 문화적배경 이해

우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국작품인만큼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소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소설은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역사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결핍한 중국인 학습자들에 있어 시대적 배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4.19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을 보충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해당 시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을 수행하게 한 후 발표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랑비속에서의 외침」의 시대적 배경과의 비교를 통해 두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적 요소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표 1> 문화적배경 비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가랑비속에서의 외침>
문화적배경 비교	* 1960년대, 자유당 정권의 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말기에서 부터 4.19를 거치는 시기, 1980년대 중반의 새로운 독재 시대 * 질문및 토론 1. 1960년대의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2. 4.19란 무엇인가? 3. 80년대의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질문및 토론 1. 중국의 1960년대는 어떤 사회인가? 2. 문화대혁명은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 나고 있는가?

3.2 작품내용 이해

작품의 구체적인 독해 과정은 일차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가(시점), 누가 주요한 인물이고, 반동적 인물인가(중심인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독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에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줄거리를 요약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

의 흐름을 파악한다.

<표 2> 줄거리 비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가랑비속에서의 외침>
줄거리 비교	<p>자유당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때, 공무원인 아버지가 된서리를 맞게 되어 나는 서울 명문 국민학교에 서 볼품없는 시골 국민학교에 오 게 된다.반장이고 독재자로 군림하 고 있는 엄석대와 나는, 첫날부터 불편한 관계를 갖 는다. 그는 일년 동안 거의 아무에게도 저항받지 않 고 학급을 지배해 왔으며, 주먹 싸움, 성적 등에서도 남보다 월등하 여 학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 다. 이것이 생리에 맞지 않은 나는 그에게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 다. 그 결과 나에게 돌아온 몫은 ‘불량한 아이’와 ‘외톨이’라는 것이 었다.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복종 을 하게 되고 그의 보호를 받아 편안하게 지낸다. 그러나 새학년이 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로 바뀌 게 되자, 보다 절대적이고 철저한 교육방식에 의해 엄석대의 굳건한 성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시험지를 우등생에게 작성하게 한 조작사실이 밝혀지고, 마침내 엄석 대는 몰락하고 만다.그후 나는 그 에 대한 기억들을 물어 버리며, 대 기업을 떠나 대리점 경영을 하다가 망해서 실업자로 전락했을 때, 석 대가 이루었던 질서로 다스려지는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졌음을 느낀 다. 우연히 본 엄석대의 모습은 수 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에게 복종 하고 무력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로 소설은 끝 난다.</p>	<p>작품은 중국 강남 에 사는 소년 孙光林의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孙光林 은 화목하지 않는 가 정에서 태어났고, 6 살 때 군인의 집에 수양되어 자라게 된다. 몸이 허약한 양 어머니와 건장한 신체를 가진 양아버지는 정상적인 부 부 생활이 불가능했고, 양아버지는 외 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 려 하였으나, 결국은 목 숨까지 잃게 된 다. 그 뒤 양어머니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주인공 孙光林은 다시 한번 버림을 받게 된다. 나중에 12 살이 되어 다시 남문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게 되나, 망나니같은 아버지 인해 가족들에게 소외당하며, 현실 세계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로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찬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에 주인공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며,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주인공의 눈으 로 그려내고 있다. 이로써 주인공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주인공이 정신 세계의 성숙,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 고 있음을 보여준다.</p>

3.3. 성장체험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과정

성장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아 정체성 탐구를 해 나간다. 작 중 인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작중인물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 해야 한다. 작중인물들이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성장체험을 찾아 내고, 해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작중인물을 자신의 실제 삶과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许美霞는 성장소설의 특징에 대해 “소설의 주인공은 유치하고 무지하며, 이는 주인공이 성장하게 되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많은 시련과 고통,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겪게 되는 위기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² 남미영은 한국 성장소설의 성장요인에 대해 성에 눈뜬, 죽음의 인식, 환멸과의 만남, 악의 체험, 아버지 찾기, 길의 발견이라고 하였다.³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가랑비속에서의 외침」은 어린 주인공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성장소설로 아버지와 의 갈등(아버지 찾기), 악의 체험 등 유사한 성장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3.3.1.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서울의 큰 학교에서 시골학교로 전입된 ‘나’가 교실 집단속의 권력관계와 집단으로의 편입과정을 보여 주면서 주인공이 저항과 굴복의 과정을 거쳐 자기발견을 이루는 성장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 ‘나’는 서울의 합리와 자유의 질서에서 공부하다가 ‘엄석대’라는 독재적 급장이 지배하는 시골의 5학년 학급에 전입된다. ‘나’는 ‘엄석대’를 악으로 보고 항 거하나 번번이 패배한다. 외로운 투쟁에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엄석대’를 칭찬하고 ‘나’를 꾸짖는다.

“거,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엄석대라고 그랬지? 벌써 그만하다면 나중에 인물이 돼도 큰 인물이 되겠다.” 도무지 불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소리였다. 후끈 단 나는 합리적으로 선거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던 서울의 급장제도를 얘기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합리와 자유에 대한 내 애착이 나악의 표지로만 이해되는 것 같았다.⁴

작품에서 ‘아버지’는 주인공 ‘나’가 바라는, 부정과 불의를 정의롭게 응징해 줄 수 있는 아버지상이 아니다. 이러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주인공은 더욱 성장의 어려움을 겪으며 현실을 자각해 나간다.

余华的 「가랑비속에서의 외침」은 회고담의 형식으로 주인공 ‘나’가 ‘아버지’와의 갈등 및 악의 체험, 가족과의 이별, ‘죽음’의 체험, ‘성’에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 두려움과 아픔, 고통 속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나’의 아버지 孙光才는 ‘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망나니’이다. ‘나’는 자신이 보고 답습해야 할 ‘아버지’라는 삶의 모델을 상실하고 가족을 떠나 세상 앞에 혼자라는 실존의 불안을 체험한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출생 과정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² 许美霞, 「论中国当代成长小说的内涵」, 厦门大学硕士论文, 2003.

³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⁴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p16, 문학과 사상사, 1993.

쾌락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로 인해 ‘나’가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다가 목을 상했고, 그 과정에서 ‘눈치’가 없는 닭 몇 마리가 아버지의 발등을 쪼아댔다. 생명의 탄생은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간본능의 결과일 뿐이다.

父亲撕扯母亲的裤带时扭伤了脖子，整个过程中还有几只不解风情的鸡恼人的啄着父亲脚，生命的诞生不过是一次毫无准备的本能发泄。⁵

작품에서 한 생명은 이렇듯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며, 남 녀가 쾌락을 위한 행위로 인해 얻게 되는 ‘별로 반갑지 않은 결과물인 것이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인도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며,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아버지’일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관계만 있을 뿐 서로에게 낯선 사람과 같은 존재이다.

작품에서 ‘나’는 ‘아버지’에 의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 부터 소외당하며, 나중에는 가족과 이별하고 王立强的 수양아들이 된다. 낯선 환경에서 ‘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며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성장해 간다.

3.2.2. 악의 체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악은 우선 ‘엄석대’에 의해 보이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학교에 전입된 첫날 시작된 ‘나’와 ‘엄석대’와의 싸움에서 ‘나’는 번 번이 패배하며, 담임선생님에게 고발하나 오히려 비난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담임 선생님의 무능은 순진하고 미성숙한 주인공이 기성세대의 불합리성과 무능함을 발견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작품에서는 ‘엄석대’를 둘러싼 급우들의 비열함이 악으로 나타난다. 6학년에 진입하고 담임이 바뀌면서 ‘엄석대’의 권위가 무너지자 급우들의 태도는 돌변한다.

석대의 나쁜 짓을 까발리고 들춰내는 데 가장 열성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들은 대개 두 부류였다. 하나는 석대의 총애를 받기 원했으나 이런저런 까닭으로 끝내는 실패한 부류였고, 다른 하나는 그날 아침까지도 석대 곁에 붙어 그 슬한 나쁜 짓에 그의 손발 노릇을 하던 부류였다.⁶

‘엄석대’의 폭력에 기죽어 살던 급우들은 ‘엄석대’의 나쁜 짓을 고발하는 ‘비열한 변절자’로 인식되며, 나아가서는 세계의 악을 물리쳐 줄 영웅이 일그러졌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주인공은 이를 통해 더욱 성숙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가랑비속에서의 외침」에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어머니’, ‘형’, ‘나’를 비롯한 가 족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받게 하는 악이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생전에 항상 욕하고 훈계하며,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비로소 안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아버지’는 한 마을에 사는 과부와 간통하며, 가난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과부’에게 갖다 바친다. ‘어머니’는 나중에 병으로 죽게 되며, 임종 시에야 ‘아버지’가 ‘과부’에게 가져 간 물건들을 돌려 달라고 말한다.

⁵ 余华, 『在细雨中呐喊』, 上海文艺出版社, 2004.

⁶ 이문열, 앞의 책.

“변기를 가져가지 말아요, 나도 써야 해요.” “대야를 돌려줘요.”
 “不要把便桶拿走，我还要用。” “脚盆还给我……”⁷

여기에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된 원인이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악’임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악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인공 ‘나’의 형 孫光平의 약혼녀를 희롱하여 결혼을 파탄시키며 나중에는 자신의 병시중을 들고 있는 며느리까지 희롱한다. 이 일로 孫光平은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감옥’에 가는 비극을 맞게 된다. 주인공 ‘나’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한다. ‘나’는 ‘아버지’에 의해 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이별하고 남의 수양아들로 된다.

이렇게 작품에서 ‘아버지’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인물로, 유년기의 ‘나’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충격은 ‘나’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독립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는 성장의 계기가 된다.

3.2.3. 성장기 체험에 나타난 사회화와 갈등의 정도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성장기 체험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반응적 양상에 따라 사회화와 갈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단순체험형과 입사형, 갈등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⁸ 단순 체험형은 가족 간의 이별, 죽음, 사랑 등의 체험을 유아의 시점으로 표백한 단순 보고적인 유년기 체험 유형이고, 입사형은 주인공이 집단 속에서 겪어 나가는 개인의 체험을 통해 주인공이 집단의 생리를 깨달아 간다. 갈등형은 주인공이 내면의식의 순 수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욕구불만이나 좌절의 고통을 통해 사회나 현실의 대립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가랑비속에서의 외침」은 주인공의 사회화와 갈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성장소설 유형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나’는 일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과 경쟁 속에서 지내며, 엄석대에 대한 기억들을 묻어버린다. 나중에 ‘나’는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지만, 대기업의 성장과정이 정의롭지 못해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간신히 생활의 안정을 찾아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엄석대를 생각하곤 했는데, 어느날 사복형사에게 연행되는 엄석대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작품은 저항-몰락-자기발견 및 세계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로 부터 볼 때, 작품은 성장소설의 유형에서 갈등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가랑비속에서의 외침」에서 주인공은 위에서 언급한 성장 체험외에 죽음의 체험, 성에 눈을 뜨는 성장과정을 거쳐 대학생이 되며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대학에 입학하고, 주인공의 눈으로 보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은 주인공의 정신세계의 성숙,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주인공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며, 이는 주인공이 사회로의 입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작품은 입사형 성장소설에 해당한다고 본다.

4. 나오기

⁷ 余华, 앞의 책.

⁸ 한명현,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성장소설의 유형을 중심으로」, 『순천향 어문논집』 5권, P383

본 고에서는 기존에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논의되었던 비교문학을 한국어 교육 에서 문학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장소설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논하고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교육방법을 고안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교육 적 시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余华, 《在细雨中呐喊》, 上海文艺出版社. 2004年.
2. 许美霞, 「论中国当代成长小说的内涵」, 厦门大学硕士论文, 2003年.
3.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9년.
4. 한명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연구-성장소설의 유형을 중심으로」, 『순천향 어문 논집』, 제5권.
5.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한국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년.
6.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문학과 사상사』, 1993년.

【中文摘要】

在韩语教育中，文学教育的学习目标一般可分为：1) 为提高阅读能力 2) 为了加强文化教育 3) 作为文学的韩国文学教育。本文以上三种学习目标的整合即复合型为文学教育的学习目标，用比较文学的角度，分析中韩两国典型的两部成长小说，并进行成长体验的比较，考察了文学教育的有效教学方案。

【Abstract】

The similarities of the essentials of the representative novels on women's growth in China and Korea in the 1990s are:

1) Having no father. 2) Breaking the gender taboos and conventions to ensure the gender ident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protagonists' awakening in the process of growth. 3) The characters step into the adult society by understanding tragedy (understanding death), and comprehend the uncertainty of the world and everything in the world by experiencing disillusion. 4) Hurt is healed by the autobiographic writing, and thus the protagonists achieve self recognition. History is reconstructed in the work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vels are listed below.

1) First of all, although both the Chinese and Korean Novelists describe gender identity recognition, they employ different methods. 2) Another difference lies in the maintenance of affection in the family. 3) There also exists the difference in revealing females' Consciousness. Korean novels advocate the concept of purism.